현불뉴스

전불련 조직강화특위 발족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 1일 대불청 만해교육관에서 제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단일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에 이어 조직강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결의한 전불련은 이날 총회에서 청화스님(전불련 前 공동의장)과 지원스님(안산 보련사주지)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단일 의장에 지선스님, 제4대 집행위원장에 김춘길씨(前대불청 경기지구 회장)를 각각 선출했다. 또 '전불련조직 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불교개혁세력 재결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불교계지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3월부터는 불교관계법령, 미래불교의 가치, 한국불교의 역사적 평가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법 무효 서명운동 전개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불교비상시국회의(운영위원장 효림)는 지난 2일 연주암, 도선사, 보광사에서 등산객 및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법 안기부법 전면 무효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불교비상시국회의는 구랍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30분 조계사 법당에서 시국법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전국 3백여 사찰에 시국법문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중에 있다.

파라미타, '법사은행' 제안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 포교연구실은 지난1월 30일~31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제1차 연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국위원(프로그램분과·대원고 교사)은 지(권)역별 법사단 은행을 구성, 각 학교 및 사찰 학생회에 법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은행제도는 각 지역내 법사를 모집, 교리 문화 환경 프로그램 의식 등의 전문법사를 양성해 1주 1사찰을 순회하며 법회를 지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국위원은 "각 사찰·학교학생회의 경우 지도법사의 유무에따라 학생회의 존립까지도 좌우된다"며 "법사단 은행제도가 실시되면 청소년법회 활성화는 물론 새싹불자 및 청·장년포교에도 큰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 천룡사지 유물 발견

경주 남산의 신라시대 고찰인 천룡사는 단탑가람이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세번 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터 2곳과 조선시대 건물터 9곳 등 모두 11곳의 건물터와 두 시대에 연결된 석축 3개, 고려시대 청동불상 1점 등 수십점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창건 연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절에 오세요"

석왕사·봉은사 등 노인대학 교리강좌등 '호응'

사찰 노인프로 태부족…'노령화시대' 대책 절실

설을 맞아 복조리를 엮는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할머니들의 부산함에는 아랑곳 없이 할아버지들은 내기장기에 여념이 없다. 석왕사노인대학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소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반나절 이상을 석왕사에서 보낸다.

최근 교양대학 개설 붐을 타고 활기를 띠고 있는 석왕사 봉은사 정수사 등 몇몇 사찰의 노인대학은 전통춤과 노래 기초교리강좌, 소일거리 제공 등으로 노인불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천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1%를 차지, 본격적인 노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95년 통계청조사 결과를 미뤄볼 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몇몇 노인대학을 제외한 사찰에서의 노인포교 프로그램이 없다시피해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노인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은 도선사 연주암 삼막사 등에서의 무료급식 및 연례행사로 치르는 경로잔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노년층만을 위한 노인법회 또한 실례를 찾기 어렵다.

성불원 주지 현각스님(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경로당과 대화방 등 사찰단위에서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노인불자들을 사찰로 이끌어내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법회와 연계해 노인불자들에게는 젊음과 가족의 정을, 어린이들에게는 노인불자들의 인생경험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포교프로그램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월 1회 탑골공원 등지에서 3년째 노인잔치를 개최해 온 운월스님(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은 "노인불자들의 신행생활을 고려한 염불당과 기초교리강좌 개설을 통해 노인불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계종이 전법의해를 선포한 시점에서 종책차원의 노인포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도필선 기자〉

독거노인에 의료-복지서비스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작은나눔 큰사랑운동' 펼쳐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는 오는 3월3일부터 대구시 남구 이천 1·2동과 봉덕 1·2·3동 거주 65세이상 만성질환 독거노인 6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同복지회는 작년 11월 삼성그룹 산하 삼성재단에서 실시한 작은나눔 큰사랑운동에 통합프로그램을 신청, 지난달 24일 최종선정됨으로써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직접방문,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현재 同복지회는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1천8백60만원과 자체조달 4천만원등 총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그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매일 점심과 국 배달 △주2회 밑반찬 배달 △주1회 세탁서비스 △월1회 이·미용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후원자와 독거노인간 결연 맺어주기 △자원봉사자 및 독거노인 모임등 7가지.

지도스님은 "공적부조에 의한 생활보호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어 통합서비스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회는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다. (053)427-1907

◇대상을 수상한 이란씨가 본지 논설위원 법산스님으로부터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본사 제2회 신행수기공모 시상

대상 이란씨 우수상 이영자·박민수씨 '영예'

본사가 주최한 '제2회 신행수기공모' 시상식이 지난 3일 녹수청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홍파(종단협의회 부회장·관음종 총무원장)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본사 김광삼사장을 비롯 축하객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이란씨(46·서울 송파구 방이동)가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로 대상(유마상)을 받았고, 우수상에는 이영자(서울 강북구 수유5동), 박민수씨가(광주시 동구 지산동), 특별상은 장명화씨를 비롯 3명이 각각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본지 109호 참조〉

이번 신행수기 공모에는 총 82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편이 예심을 거쳐 6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본사는 오는 11월에도 '제3회 신행수기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돈받고 목사설교 16일간 불법방영

부산 동삼유선방송

부산 동삼유선방송(사장 박정규)이 동삼제일교회가 제작한 다락방전도회 유광수목사의 설교를 16일 동안이나 방영해 물의를 빚었다.

동산 1,2,3동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동삼유선방송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 방영해 왔다는 것이다.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이익, 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혹은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다.

동삼유선방송사 박정규사장도 위법임을 알면서도 일정액의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방영해 왔다는 것을 시인했다.

유선방송의 허가를 담당하는 영도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허가후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윤을 목적으로 음란물이나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히 방영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봉축기획단, 부처님오신날 표어 확정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창)은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로 확정했다. 이 표어는 기획단이 공모한 작품 가운데 당선작이며, 가작은 '깨달음은 내 가슴에 자비행은 이웃에'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맑고 따뜻하게'가 각각 선정됐다.

봉축기획단은 올해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종단과 국민이 나아갈 방향 제시 △불교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연등축제를 전통종교축제의 전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평일실시' 철회촉구 "교계 뜨겁다"

총무처장관 재답변 요청…조계사 규탄대회도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은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와 관련 지난 4일 총무처 회신이 총무처는 지난 30일 "충분한 답변이라 볼 수 없다"며 재질의에 따른 회신을 요구했다.

재질의서에서 조계종은 "공무원시험 평일실시에 따른 약 10%의 직장수험생 응시기회 박탈하고 종교간 공존과 국민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할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항의방문단을 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조계사 청년회(회장 남도희)는 지난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영삼 정권의 특정종교 편향정책 시정을 위한 규탄대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처는 지난달 30일 '방학기간중에는 평일에도 시험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회신을 보내왔었다.

우리는선우 '용기백배캠프' 현장

"가족의 情 나눈 1박2일"

소년소녀가장-선우회원 32쌍 즐거운 만남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빨리 호각이나 불어주세요."

눈썰매타러 캠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이뤘다는 이창우군(동원초등 6년)이 자신과 짝을 이룬 친구의 허리를 꼭 껴안고 목청껏 외쳤다.

대부분 처음 타보는 눈썰매. 처음에는 겁먹은 표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소년가장들의 얼굴은 해맑은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소년소녀가장 32명을 초청, 선우회원 32가족과 함께 '97 용기백배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자칫 외로움으로 삶의 의욕을 잃기 쉬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선우회원들과 또래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자 마련됐다.

선우회원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한마음이 된채 밥도 짓고, 찌개도 끓이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됐다.

◇소년소녀가장들은 우리는선우 회원들과 한가족이 되어 신나게 눈썰매를 탔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그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오락시간. "빠른 음악에 맞춰 선우회원들과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허정란양(영림중 3)의 말이다.

신나게 1박2일을 보낸 소년소녀가장들은 기차에 몸을 실은채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소년가장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혹시 꿈에 그리던 엄마 아빠와 함께 눈썰매를….

마음 물러서지 말라

무조건 멀어라. 물러서지 말라.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멀음에서 물러서지 말라. 일체망법이 바로 내마음에서 나고 든다. 주인공을 진실로 멀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주인공은 일체 망법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원소이며 핵이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1월15일 ~ 2월 2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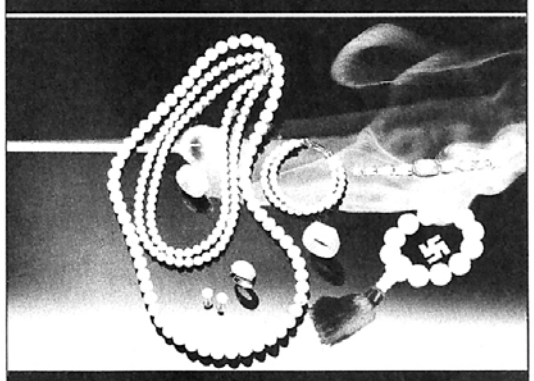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 국 승 가 대 학 원
책임교수 최 공 덕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어둠이
그리움되어
도시의 끝 자락을
물들입니다.

침묵과 고뇌의 밤
수없이
적막을 깨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슬한 바람이
그대의 맑고 깨끗한 이슬이 되어
가슴으로 젖어 듭니다.
슬잎바람
달빛 향기 스미는
그대 창가에 풀잎 끝 마다
그리움으로 엉키어
가만히 내려앉은
밤 이슬이 되겠습니다.
머얼리 파랗게 부셔져 내린
파도를 업고
서로의 먼 눈빛으로
젖어

고독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